

大韓地誌序
 今夫大終日戴天而不知天終日履地而不知地可乎雖然天則斯昭昭矣日月五星二十八宿有目者皆可一瞬而得之矣地則不然八海五洲山陵州瀆殊彊異域限隔蔽虧非可以一瞬而得之也亦非可以躡跖而至也則知地不尤急於知天哉且夫地者人物之所附麗也鄙邑之大小關隘之險易戶口之多小財賦之贏細產出之良窳謠俗之淳薄皆自關於有國之政治則是又不可以不印也明矣故在周職方氏有專職漢之時肅何以先知天下阨塞功居第一而馬伏波之議征隗囂也聚米成山指陳形便皆以此也後世詞章之學起崇尚浮華黜棄實事有才之流類皆消鑠其聰明精力於無用之地而不知反焉惟我聖天子痛懲其弊更定學制凡學校應遷者自童幼以上皆令習時務切近者而地誌居其一焉玄君采來遊學部病本國地誌之文短濶不便於

初學乃雜用國漢文輯古今紀錄略其細舉其大且附以新意上起位置下止土產凡十餘門而其體畧仿柳子厚山水記悠揚渙迤使人可以讀可以咏可以記存而不忘其用心可謂勤且苦矣書既成君要余發義余惟今日五洲之內萬國之所占據山川都會風土物產可謂宏博奇麗日聞所不聞者矣有志之士張目奮臂述之爲書幾乎日譯萬紙而見今本國所行萬國地誌尙不免乎掛一漏萬則君寧獨可汲汲於此書哉然舍已之田而耘人之田雖愚農夫不爲也故善爲道者先成己而後成物善用兵者先算己而後算敵反之則殆此蓋君之意也吾願學校諸君子深諒此意先讀是書以致其知然後進而窮極于五洲八萬餘里之全局有以大奮其志略致君道於日月之上著功名於竹帛之中而母使蕭馬輩笑人寥寥也哉

光武二年十二月二十五日

編輯司長李圭恒序

大韓地誌凡例

一 四方平開處野라云고野中畠田畠이有하야五穀野菜等을種하니處野田野라云고

一 森林이無하니沙礫雜草만有하處沙漠이라云고

一 平野中稍高處高原이라이云고
平地에隆起하야低小者를丘라云고高大者를山이라
云고衆峯이聳起하處嶽에라云고

一 山의下를麓이라云고山의上을頂이라云고其中特秀者者를峯이라云고

一 山頂山麓의中間을山腹이라云고山腹브더斜開하處를阪

이라云고阪의頂을峯이라云고
水의始生處를源이라云고冰의流가漸大하者를川이라云

火摠合十二萬八千三百三十七兩三錢八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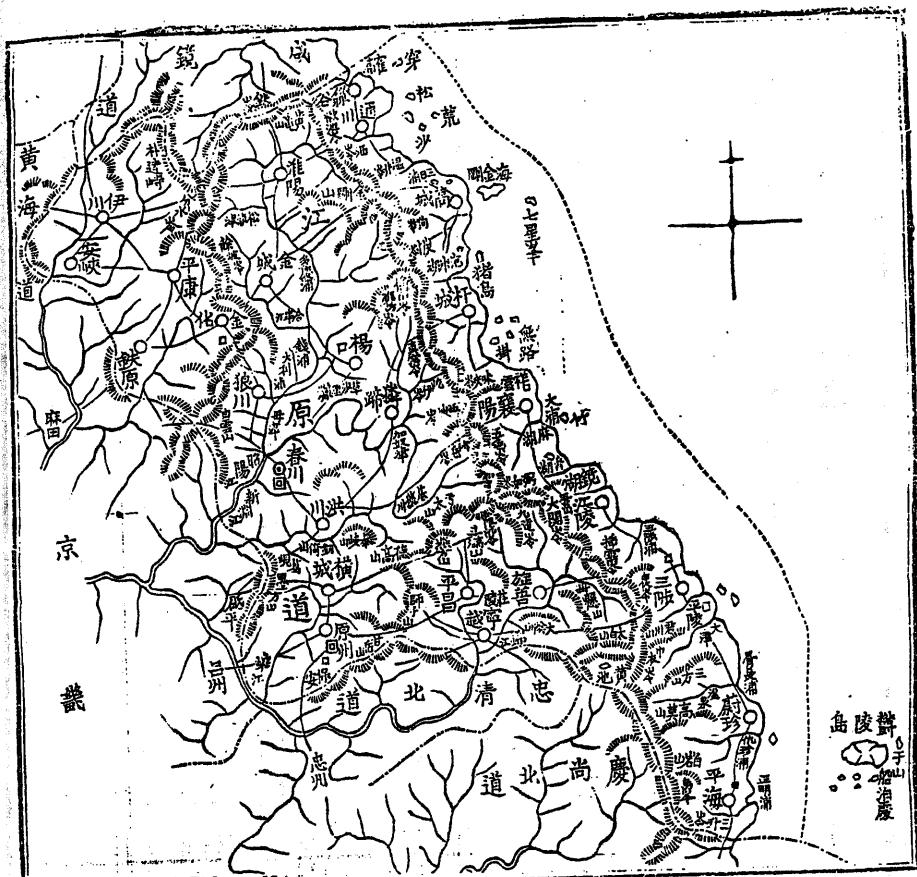
第十一編 江原道 首府春川 二十六郡

第一課 位置境界 地勢 沿革

江原道位置境界는本國東方海岸一帶地를 占한 北은咸鏡南道를
接하고 西는黃海京畿兩道에 隣하고 南은忠淸北道와慶尙北道를 界
하고 南은大海를 濱한 데니라

地勢는南北이 長하고 東西가 狹하여 本道全境에 山岳이 重疊한 中에
絕勝호 景概가 具神仙洞府와彷彿한 著名潭奇岩과白沙青松이며 樓
臺亭榭가 有한 야文人墨客의 往來游咏이 甚多한 나 惟其地가 碣确宮
으로 民生이勤苦한 데니라

本道沿革은 舊時濶貊이라 樂浪百濟가 分據한 았더니 新羅景德王十
六年에 漢朔二州都督府를 置한 았아郡縣를 領케 한 았다가 孝恭王時에
弓裔가 叛據한 데 景明玉時에 高麗에 屬한 았야 成宗十四年에 朔方道라



야稍大호고 春川에 至호야 懸蹄等郡의 諸水를 捻會호고 江原京畿兩道界를 穿호야 新淵江_{春川} 아 되야 漢江에 注호며 江上流長安山南麓에
巨刹아 有호야 長安寺라 名호니 層塔高閣아 據山對水호야 風景이甚
히佳絕호니라

錦障江_{寧越} 은 五臺山에서 發源호니 亂峽深谷의 溪流가 皆茲에 注호야
忠清北道로 入호느니라

五十川_陟^(三) 은 太白山北麓에서 發호는 一細流니 東方三陟을 過호야 東海에 入호고 南川_陽^(襄) 도 亦 西境山脉에서 發호는 一溪流니 江陵南을 過호야 海에 入호느니라

第三課 海灣 島嶼

本府東方에 沿岸이 茲長호나 海灣岬角의 凹凸호이 少호고 又 一望開豁호야 澄港島嶼의 蔽遮호이 無호니 此를 東北沙海라 稱호느니라

通川東에 蘭浦가 有호고 杆城東에 加津岬이 突出호며 蔚珍北에 龍湫岬이 有호니 其海灣은 竹邊串이라 名호니라

蔚珍浦는 蔚珍東에 在호埠頭니 其南端의 海에 突出호者는 베기실岬이라 澄內가 水深호야 繫舟호기 便호고 越松浦_平는 本道南端에 在호
一浦니 亦 碇繫호기 便호故로 舟楫이 恒常來往호느니라

沿岸에 松島沙島無路島猪島竹島等의 羣島가 羅列호나 皆渺少호沙磧地오 獨鬱陵島는 東海에 在호稍大島라 島中央에 在호 一峯을 中峯이라 名호니 樹林이 蔚蒼호고 規木과 香木等이 著名호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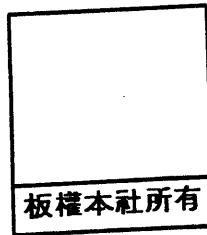
第四課 都會 勝地

江陵은 普賢山_{江陵}東麓에 在호니 人烟이 稠密호고 閭閻이 檜比호며 其中에 鏡浦는 周가 二十里로 터 水深이 肩에 不過호니 勝地로有名호고 郡北에 襄陽郡이 有호니 亦一名區라 富盛宮으로 떠稱호며 其他杆城

大韓地誌跋
 余所編地誌本諸日人所記參諸輿地勝覽旁及部府掌故而其所敘述略倣古山水記簡嚴之意少而悠揚之詞多蓋變體也舍正體而爲變體者奈何余以爲今使小學童子課習地誌而其文簡淡一如禹貢水經之爲則其不便有四難讀一也難記一也難欽動一也難開發一也以此四難望其成功不亦迂乎故余之爲此也要使難易適得相半難不至太棘易不至太俚渙然冰釋怡然理順但其名勝敘述本出於日人一時遊歷之際其於山脉水脈或不能無失實之病而顧以教課事急不能摩歲月博考據此其所愧也世之君子其或嗣而輯之匡余過誤而歸于至當則斯厚幸云

光武三年十二月二十五日白堂 玄采跋

韓國地理風俗誌叢書



板權本社所有

1995년 2월 10일 초판인쇄
1995년 2월 20일 초판발행

편 자 : 경인문화사 편집부
발 행 자 : 한 정 희

발 행처 : 도서출판 경인문화사
서울·마포구 용강동 494-15

전 화 : 718-4831~2
등록전화 : 제10-18호/1973. 11. 8

정가 각권 33,000원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